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의사소통의 듣기와 말하기의 조절효과

손 강 숙

아주대학교

주 영 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간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만 40세 이상의 기혼 중년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중 말하기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의 말하기와 듣기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듣기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기혼 중년남녀의 부부 상담과 부부 상담프로그램에서 성적친밀감과 조절변인인 듣기의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혼 중년남녀, 성적친밀감, 부부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 교신저자 :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E-mail : juyou61@kcgu.ac.kr

최근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야한다’는 전통적 결혼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혼남녀들도 결혼 이후의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지속, 경력단절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손영미, 박정열, 전은선, 2015). 이러한 문제는 일생의 중대사로서 부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Holms & Rahe, 1967).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을 강화하여 부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결혼의 질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정옥분, 정순화, 2014),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Stack & Eshleman, 1998). 결혼만족도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김민녀, 채규만, 2006)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을 할수록(유시순, 200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는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이훈구, 2004) 자존감이 높아진다(조성희, 박소영, 2010). 반면에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부부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Stack & Eshleman, 1998) 결혼 만족도는 기혼남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이다(Larson & Holman, 1994;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은 결혼만족도란 주어진 시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 따라 자신의 결혼생활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정적인 부부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권위적인 부부관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특히 애정적인 부부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Blumstein & Schwartz, 1983; Merves-Okin, Amidon, & Bernt, 1991) 애정적인 자녀양육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노명희, 1991) 부부의 애정 강도는 결혼만족도를 향상(Rutledge, 1966)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부부 상호간에 친밀하고 애정적인 감정교류와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고 애정적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의 행복감과 직결되어 높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이희숙, 박경, 2008; 정순례, 2014; Litzinger & Gordon, 2005; Yeh, Lorenz, Wickrama, Conger, & Elder, 2006)을 들 수 있다. 성적 친밀감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부부가 성적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Massey, 1999). Sprecher(2002, 2013)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신체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여자들은 정서적인 친밀감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과 의사소통을 반영하므로(이광자 등, 2004) 부부 성생활의 만족은 결혼 생활의 만족과 직결되고 부부간의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수단이 된다(Morokqff & Gilliland, 1993). 성 의사소통이란 부부관계에서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및 느낌을 나누는 과정을 말하며(변금령, 이영호, 2012), 성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전반적인 부부 적응이 수월해진다(김요완, 2000). 김영기, 한성열, 한민(2011)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적 전통이 퇴색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을 표방하는 현대인의 실생활에서는 이미 성 만족의 중요성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이 일상에서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는 달리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표현이나 권위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Oattes, Offman, 2007; Sprecher, Regan, 2000).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관계에서 얻는 성적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혜, 채규만, 1999a).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정서적 의사소통 및 성적 불만족 등과 같은 특정영역에서의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이혼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권정혜, 채규만, 1999b).

Fish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부부들도 성적 친밀감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67%, 부인의 50%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적 친밀감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편의 85%, 부인의 61%는 삶의 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불만족 문제도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4)이 발표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한국의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혼의 원인이 2005년에는 배우자 외도가 7.6%이던 것이 2009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 결혼한 부부가 경험하는 배우자의 외도는 믿음의 파괴, 불신, 거짓, 분노, 부부갈등, 별거, 이혼, 직장의 파괴 등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Weeks, 1989)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과 관련된 부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남순현(2008)은 특히 중년기는 신체노화와 더불어 40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자녀와의 관계변화 및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결혼생활을 재조명해보는 시기로써 결혼생활의 성적친밀감이 중년기의 심리적 행복감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결혼생활 만족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부부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김명희, 최연실, 2007; 김순옥, 2001; 이현주, 2008; Hammond, Cheney, & Pearsey, 2015). 부부 의사소통이란 부부 사이의 생각, 감정, 느낌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통적 이해를 통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이다(Edward, 1980).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가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유옥,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부인하기, 경멸하기, 침묵하기 등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권윤아, 김득성, 2008; 류석진, 조현주, 2015; Gottman, 1999). 뿐만 아니라 오랜 결혼생활로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할 것 같은 노부

부도 의사소통의 미숙이나 부족에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된다(모의회, 2002). 최근에는 40-50대 중년의 이혼율의 증가가 황혼이혼으로 이어지고 있고 50세 이상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김소진, 2009) 몇몇 연구자들(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효진, 황의완, 1996; 이시형 등, 1989)은 중년기 기혼여성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화병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부갈등이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권윤아와 김득성(2011)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분노를 자극하는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배우자의 조망수용 능력,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부부의사소통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의 연구에서 비난을 일삼아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공격과 신체적인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들이 건강한 황혼을 맞이하고 결혼만족도의 증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부부간의 현재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결혼만족도를 위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Gottman(1999)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선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마디를 부드럽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윤아(2015)의 연구에서도 부드러운 첫마디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일수록 부부싸움 이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rodsky(2012)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 듣기(listen)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2012)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의사소통이 타인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하였다. Hammond 등(2015)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직, 친절,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담기술 차원의 듣기란 통상적으로 관심기울이기, 최소격려, 질문, 생각 반영과 감정 반영을 포함한 적극적 경청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듣기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 듣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적극적 경청이 이어진다. 변화순 등(2001)의 연구에서도 20대 부부가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정도가 비교적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50-60대의 부부는 부부간의 대화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부인의 이야기에 대해 듣기(listen)를 싫어하는 남편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의 해결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의 중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이며 그들 주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문제이다. 또한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부간의 문제는 자녀의 적응문제(박한샘, 연문희, 2004; 이삼연, 2002), 정서적인 문제(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그리고 학교 및 세상에 대한 안전감

의 문제(비은선, 조결자, 2002; 장덕희, 장경아, 2009; 주소희, 2008)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를 위한 여러 가지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만족도를 위한 부부간 성교육, 듣기와 말하기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부역할(김태현, 박주희, 2005; 이여봉, 2010), 부부갈등(강선모, 2014; 홍성희, 2014) 등에 대한 주제로 편중되어 있고 부부간의 개인 내적 변인인 성적친밀감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절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듣기의 중요성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 또한 부족하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의 중요성과 더불어 배우자 말의 내용과 그 이면의 뜻을 잘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만족감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David와 Waring(1985), Byers와 MacNeil(1997), Metts(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정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은 매개변인과 조절변인 둘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부부갈등과 낮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류석진, 조현주(2015)의 연구의 관점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의사소통이 조절변인으로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황민혜와 고재홍(2010)의 연구와

Litzinger와 Gordon(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부 의사소통의 조절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불만족을 낮추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 즉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개입이 용이한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낮은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입이 가능한 변인인 의사소통을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 결혼만족도, 부부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은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은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는 중년기 부부의 결혼불만족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한 예방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의 만 40세 이상의 기혼 중년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 37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여 3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70명 중 남성이 175명(48.4%), 여성이 179명(50.6%)이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만40-49세가 128명(36.2%), 만 50세-59세가 176명(49.7%), 만 60세 이상이 50명(14.1%)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5	49.4
	여	179	50.6
연령	만 40세~49세	128	36.2
	만 50세~59세	176	49.7
	만 60세 이상	50	14.1

측정도구

성적 친밀감 척도

성적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sey (1999)가 개발한 성적 친밀감 척도(Sexual intimacy scale)를 이희숙과 박경(2008)이 번역하여 요인분석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척도로 총 30개의 문항으로써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측정한다. 이희숙과 박경(2008)이 빈안한 성적 친밀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97이었다.

부부 의사소통 척도

부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정혜와 채규만(1998)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강차선(2006)이 제작한 '의사소통 질문지'를 사용했다. 본래 의사소통 질문지는 2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을 선택했으며, 말하기(20문항), 듣기(15문항), 문제해결(18문항), 총 53문항으로 대화 및 문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말하기와 듣기의 두 개 하위요인 35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1-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대화, 문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하는 의사소통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고, 대화유형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36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생활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노명희와 이숙(1991)이 요인분석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평소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하위 요인으로 애정적인 부부관계(20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7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7문항), 권위적인 부부관계(6문항)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애정적인 부부관계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다. 노명희와 이숙(1991)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04로 나타났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는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응답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354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각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시킨 후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적친밀감,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독립변인인 성적친밀감과 조절변인으로 가정한 부부 의사소통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성적친밀감과 의사소통(말하기, 듣기)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인 부부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성적친밀감, 결혼만족도, 부부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에서 성적친밀감은 평균 2.76, 표준편차 .327,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는 평균 3.00, 표준편차 .620,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평균은 3.10, 표준편차는 .401, 듣기의 평균은 3.09, 표준편차는 .354로 나타났다. 성적친밀감, 결혼만족도, 부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와 정적 상관($r=.367, p<.001$),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정적 상관($r=.113,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는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정적 상관($r=.576, p<.001$), 듣기와도 정적 상관($r=.21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말하기와 듣기도 정적 상관($r=.475,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 변인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N=354)

	1	2	3	4
1. 성적친밀감	1			
2.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367***	1		
3. 부부 의사소통: 말하기	.113*	.576***	1	
4. 부부 의사소통: 듣기	.072	.216***	.475***	1
M	2.76	3.00	3.10	3.09
SD	.327	.620	.401	.354

*** $p<.001$, * $p<.05$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적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7, p<.001$). 즉, 성적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1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는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6, p<.001$). 즉,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를 더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는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N=354)

단계	예측변인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β	t	R ²	F(df ₁ , df ₂)
1	성적친밀감	.367	7.409***	.135	54.898(1,352)***

***p<.001

표 4.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N=354)

단계	예측변인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β	t	R ²	F(df ₁ , df ₂)
1	부부 의사소통: 말하기	.576	13.214***	.332	174.603(1,352)***

***p<.001

표 5.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N=354)

단계	예측변인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β	t	R ²	F(df ₁ , df ₂)
1	부부 의사소통: 듣기	.216	4.149***	.047	17.214(1,352)***

***p<.001

그 결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는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6, p<.001$). 즉,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더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는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조절효과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상호작용항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조절효과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투입한 경우,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전체 변량의 17.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R^2=.171, F(2, 351) = 36.211, p<.001$). 2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고,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

표 6.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조절효과 (N=354)

단계	예측변수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β	t	R ²	ΔR^2	F
1	성적친밀감	.306	7.503***	.424		129.165***
	의사소통: 말하기	.541	13.271***			
2	성적친밀감	.295	6.933***	.425	.001	86.390***
	의사소통: 말하기	.545	13.302***			
	성적친밀감x의사소통: 말하기	.040	.953			

***p<.001

표 7.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조절효과

(N=354)

단계	예측변수	결혼만족도: 애정적 부부관계				
		β	t	R^2	ΔR^2	F
1	성적친밀감	.354	7.258***	.171		36.211***
	부부 의사소통: 듣기	.191	3.911***			
2	성적친밀감	.321	6.513***	.192	.021	27.724***
	부부 의사소통: 듣기	.227	4.573***			
	성적친밀감x부부의사소통: 듣기	.152	3.014**			

** $p < .01$, *** $p < .001$

관계의 전체 변량의 2.1%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92$, $F(3, 350) = 27.724$, $p < .001$). 즉, 최종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의 1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 뿐 아니라,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상호작용항($\beta=.152$, $p < .01$)도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조절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의 크기를 계산하는 Cohen(1988)의 식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조절효과의 효과의 크기는 Cohen(1988)이 제시한 0.02보다 큰 0.0253으로 나타

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Fra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에 따라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낮은 수준으로,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는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에 대한 성적친밀감과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친밀감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가 높았다. 또한 성적친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높은 사람들이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낮은 사람들보다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가 높았다. 즉,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2 = \frac{\text{step2의 } R^2 - \text{step1의 } R^2}{1 - \text{step1의 } R^2}$$

그림 1. 조절효과 크기 계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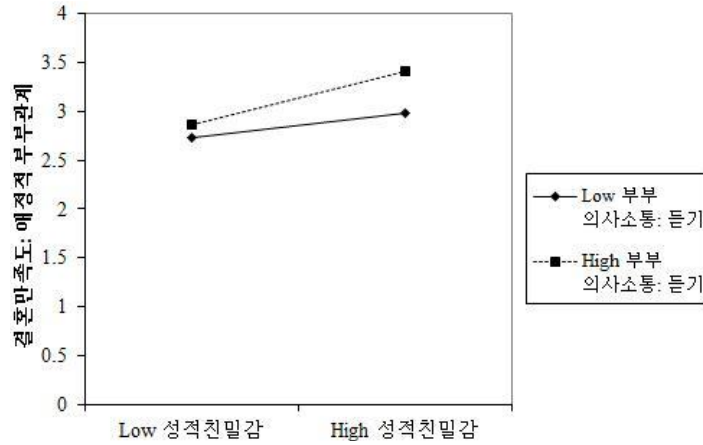


그림 2.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중 애정적 부부관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의 조절효과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만 40세 이상의 기혼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에서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부부간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의 관계와,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부간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의 조절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 결혼만족, 부부간 의사소통(말하기)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적친밀감은 결혼만족, 부부간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한 김경진(2010)의 연구에서 성생활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부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말하기, 듣기 모두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시도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와 직결된다는 Morokqff와 Gilliland(1993)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적 친밀감의 정도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이선미(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친밀감이 육체적 이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성적 친밀감과 행복한 결혼생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이영실, 1989)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성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김효정(2012)의 연구에서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노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2011)의 연구에서 성생활만족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것과는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부 간의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을 알 수 있었다. 성생활이 본능적 욕구의 해소 뿐 아니라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이영실, 1989) 한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상정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도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Smolen, Spiegel, Khan & Schwartz, 1988),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한 McKay, Davis와 Fanning(1995)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이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변인인 성적친밀감보다 조절변인인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가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적인 부분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문인자, 조옥희, 김효심, 1997). 또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문항

일부와 결혼만족도의 문항 일부가 유사한 점이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도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윤아와 김득성(2008)의 연구에서 남편의 적극적 경청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아내의 적극적 경청이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듣기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첫 번째 능력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귀로 듣고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수신을 인정하는 과정으로(백미숙, 2006),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는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가 조절변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친밀감이 높고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친밀감이 높고 부부 의사소통 중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와 부부 갈등의 관계에서 부부간 건설적 의사소통이 조절역할을 한 황민혜와 고재홍(2010)의 연구와 Litzinger와 Gordon(2005)의 연구에서 성적만족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 먼저 듣고 이해함으로써 부부관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 정창성(2008)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배우자가 전달하는 정서적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한 연구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Noller, 1981; Vincent, Weiss, & Birchler, 1975).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애정적 부부관계의 문항의 일부가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혼만족도와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상관관계수가 .576($p < .01$)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이미 종속변인에 말하기의 변량이 다수 포함되어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조절 효과가 듣기에 비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개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라는 동반자와 함께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이때부터 개인이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 표현하는 바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결혼생활에 얼마만큼 만족하는 가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나의 배우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나의 자녀, 더 나아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서나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특히, 중년기의 부부는 다른 세대의 부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두원(2009)의 부부

간 의사소통 형태의 세대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50대는 문제해결과 개방적 태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반면 경청, 피드백, 의사표현과 같은 소통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부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의사표현을 명확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모호한 표현과 의도나 내용을 숨긴 간접적 방식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청과 피드백 면에서도 배우자가 말을 하는 동안 시선을 회피하거나 배우자의 말을 지루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가정생활에서의 무관심과 권태, 대화상실로 인해 부부의 외도가 일어나고 갈등, 이혼과 같은 부부 생활 위협을 경험하는 시기(김재은, 1983)이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점에 이르는 시기이다(정옥분, 2011). 따라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부부 상담을 하는 상담자나 부부 상담에 참여하는 중년기 부부 모두에게 중년기의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성적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 요소이지만 중년기 부부에게 있어서 성적친밀감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익숙함’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등한시 되어 왔을 수 있다. 상호간에 애정이 있는 결합, 상호보살핌을 자주 경험하며 성적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신체적 교감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은 대체로 관계

속에서 나만 알거나 내 주장을 더 크게 함으로써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미루어놓고 변화하려 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 보다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여기’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중년기 성인의 결혼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일 변인보다는 다차원적인 변인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함을 시사하며,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듣기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년기 성인의 성적친밀감과 의사소통 중 듣기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개입 가능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부부 상담과 부부 상담 프로그램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에 성적 친밀감,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생활에서 성적 친밀감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 변인의 수준을 높이는 상담적 개입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만족도를 낮추는 개입이 아니라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의 개입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성만족, 성행동, 성반응, 성태도, 성기능 등에 초점을 두고 성과 관련된 정서, 동기, 인지 등 심리적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써 다루었다. 또한 성적 친밀감을 부부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성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신뢰, 안정, 애착, 만족 등 심리적 측면을 보

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부부간의 성적 불일치로 인한 일방적 성적 강요, 성적 불만 등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부 상담과 성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성적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셋째, 의사소통 중 듣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을 유형별로 나눈 것과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와 같이 한 개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요소들을 조절변인으로써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Imago 부부치료나 Gottman 부부가족 치료와 같은 치료 장면에서 강조되는 듣기의 치료적 효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의 듣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적인 부부 의사소통에서의 듣기가 부부 갈등과 문제에 예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결혼만족도와 소득 수준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현경자, 박선영, 2012; 장춘미, 2009; 김시연, 서영식, 2010; Kinnunen & Feldt, 2004)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 대상으로 연구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 남녀라는 개별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지각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효과나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결혼만족도란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

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존감 수준이나 성적 친밀감,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결혼만족도 관련 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상대방 효과와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말하기, 듣기의 2가지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부부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이었던 의사소통의 행위를 측정하는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내용이나 속성을 포함하는 부부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성이 개인적이고 민감하며, 응답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연구에서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 대상의 성적 친밀감 정의와 구성요인을 찾고 국내 실정에 맞는 타당화 된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 대상의 성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의 애정적 부부관계 문항의 일부에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로 인하여 부부 의사소통 중 말하기의 변량이 종속변인에 포함되어, 말

하기의 조절효과가 듣기에 비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을 성적친밀감과 결혼만족도의 조절변인으로 상정하고 검증하였다. 의사소통이라는 변인이 조절적인 역할과 매개적인 역할 둘 다 할 수 있음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분석시 단순 주효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조절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본 연구의 설문은 문항이 성에 대한 질문 등 개인적이고 노출을 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보고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사회적 통념에 따른 의도적인 왜곡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보고 형식을 보완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 또는 심리치료 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 종단 연구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모 (2014).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257-283.
- 강차선 (2006). 부부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아 (2015). 결혼생활문제와 부부싸움결과의 관계: 역기능적 부부싸움방식의 매개 및 부드러운 첫마디의 완충 효과. *한국가*

- 족관계학회지, 19(4), 3-20.
- 권윤아, 김득성 (2008).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6(10), 83-96.
- 권윤아, 김득성 (2011).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7), 67-80.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5-51.
- 권정혜, 채규만 (1999a).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1999b).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 김경진 (2010).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영기, 한성열, 한 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199-218.
- 김명희, 최연실 (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녀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소진 (2009).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29(3), 1087-1105.
- 김수진 (2011).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98-213.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83). *인간발달의 과정*. 서울: 전망사.
- 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효진, 황의완 (1996). *찾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4(2), 23-32.
- 김태현, 박주희 (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김효정 (2012). 일부 성인의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8).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8(0), 538-539.
- 노명희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이 숙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류석진, 조현주 (2015).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213-233.
- 문인자, 조옥희, & 김효심 (1997).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Sexuality Education for Adolescents).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1), 145-159.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여성*, 19(1), 65-83.
- 박한샘, 연문희 (2004).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1-29.
- 반신환 (2007). 가트만(Gottman)의 부부관계의 모형과 부부치료이론: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단일호), 149-166.
- 백미숙 (2006). 의사소통적-치료적 관점에서 듣기와 공감적 경청의 의미. *독일언어문학*, 12, 35-55.
- 변금령, 이영호 (2012). 기혼 남녀의 성 의사소통 유형이 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23-652.
- 비은선, 조결자 (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 정도 비교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743-756.
- 손영미, 박정열, 전은선 (2015).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족 양립 관련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53-280.
- 유옥 (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시순 (2003). 기혼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0), 73-104.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7), 97-119.
- 이광자, 김문실, 김수지, 김옥수, 변영순, 신경림, 안경애, 이경혜, 이광옥, 이자형 (2004). 가족건강과 신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두원 (2009). 부부간 의사소통 행태의 세대별 특성과 변천과정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7(1), 129-151.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0), 37-65.
- 이선미 (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오강섭, 조소연, 배석주, 이성희, 김영철 (1989). 화병의 임상연구: 분노반응으로서의 화병. *고려병원 잡지 고의*, 12, 483-488.
-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한국인구학회)*, 33(1), 103-131.
- 이영실 (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주요인과 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4), 47-53.
- 이희숙, 박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덕희, 장경아 (2009). 이혼가족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족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5-24.
- 장문선, 김영환 (2003).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 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장경아 (2009).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례 (2014).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2(2), 301-339.
-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이혼 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71-188.
- 정옥분 (2011). 발달심리학-전 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2014).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창성 (2008). 대화를 통한 부부 갈등 해소 방안.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박소영 (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0), 149-174.
- 주소희 (2008). 누적적 위험요인과 이혼가정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6, 61-86.
- 최승미 (2015). 결혼만족도, 스마트폰중독 및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 55-78.
- 통계청 (2014). 2013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현경자, 박선영 (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과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85-411.
- 홍성희 (2014).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모 친밀도 차이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269-290.
-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540.
- Booth, A., & White, L. (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605-616.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odsky, S. L. (2012). *Therapy with coerced and reluctant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yers, E. S., & MacNeil, S.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6(4), 277.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rdova, J. V., Gee, C. B., & Warren, L. Z. (2005). Emotional skillfulness in marriage: Intim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skillful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218-235.
- Docan-Morgan, T., & Docan, C. A. (2007). Infidelity on the Internet: Double standards and the differing views of women and men. *Communication Quarterly*, 55(3), 317-342.
- Edward K. H. (1980).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gnitive homeostasis* [dissertation]. Washington (USA): University of Washington.
- Fisher, L. (2010). *Sex, Romance, and Relationships: AARP Survey of Midlife and Older Adults* (AARPPub. No. D19234). Washington, DC: AARP.
- Frazier, Patricia A., Tix, Andrew P., & Barron, Kenneth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NY: Norton.
- Greff, A. P. & Malherbe, H. L. (2001).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pouse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7, 247-257.
- Hammond, R., Cheney, P., & Pearsey, R. (2015). *Sociology of the family*. Rocky Ridge Press.
- Henderson-King, D., & Veroff, J. (1994).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Well-being in the first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4), 509-534.
- Henline, B. H., & Lamke, L. K. (2003). *The experience of sexual and emotional online infidelity*. Poster presented at the 65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Vancouver.
- Hertlein, K. M., & Piercy, F. P. (2006). Internet infidel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Family Journal of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4(4), 366-371.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Kinnunen, U., & Feldt, T. (200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5), 519-532.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hips*, 43, 228-237.
- Litzinger, S., & Gordon, K. C. (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1, 409-424.
- Massey, R. F. (1999). *The Assessment of sexual intimacy: A validity study*. The University of

- Tennessee, Knoxville. Doctor of Philosophy.
- Mckay, M., Davis, M., & Fanning, P. (1995).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 Merves-Okin, L., Amidon, E., & Bernt, F. (1991). Perceptions of intimacy in marriage: Study of married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2), 110-118.
- Metts, S. (1991). Sexuality and communication in close relationships.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 93.
- Montgomery, B. M. (1988). Quality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343-359. New York: Wiley.
- Morokoff, P. J.,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1), 43-53.
- Noller, P. (1981). Gender and marital adjustment level differences in decoding messages from spouse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272-278.
- Oattes, M. & Offman, A. (2007). Global and Sexual Self-Esteem as Predictors of Sexual Communica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6, 89-100.
- Patton, D., & Waring, E. M. (1985). Sex and marital intimac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1(3), 176-184.
- Roach, A. J., Frazier, L. O., & Bowden, S. 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537-546.
- Rutledge, A. L. (1966). *Pre-marital counseling*.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ers.
- Smolen, R. C., Spiegel, D. A., Khan, S. A., & Schwartz, J. F. (1988). Examination of marital adjustment and marital assertion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wom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284-289.
- Sprecher, S. (2002). Sexual satisfaction in premarital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satisfaction, love, commit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9(3), 190-196.
- Sprecher, S. (2013). Attachment style and sexual permissivenes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4), 428-432.
- Sprecher, S., & Regan, P. C. (2000). Sexuality in a relational context. *Close relationships: A sourcebook*, 217-227.
- Stack, S., & Eshleman, J. R.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27-536.
- Underwood, H., & Findlay, B. (2004). Internet relationship and their impact on primary relationships. *Behavior Change*, 21(4), 127-140.
- Vincent, J. P., Weiss, R. L., & Birchler, G. R. (1975). A behavioral analysis of problem solving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and strange dyads. *Behavior Therapy*, 6, 475-487.
- Weeks, G. R. (Ed.) (1989). *Treating couples: The intersystem model of The marriage council of Philadelphia*. New York: Brunner/Mazel.
- Yeh, H. C., Lorenz, F. O., Wickrama, K. A. S., Conger, R. D., & Elder, G. H. (2006). Relationships among sexual satisfaction, marital

손강숙·주영아 /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의사소통의 듣기와 말하기의 조절효과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at mid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339-343.

논문 투고일 : 2015. 08. 06

1 차 심사일 : 2015. 08. 18

게재 확정일 : 2015. 11. 2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The Moderating Effect of Speaking and Listening in Couple Communication

Shon Kang Suk

Ajou University

Ju Young Ah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speaking and listening) in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satisfaction, sexual intimacy, and speaking of couple communica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peaking and listening of couple communication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Secondly, sexual intimacy significantly predicted the marital satisfaction. Third, speaking and listening of couple communic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marital satisfaction. Fourth, speaking of couple communic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did not show a moderating effect. Listening of couple communic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showed a moderating effect. Through this results, we discussed the need for intervention on the potential use of sexual intimacy and listening of couple communication prov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counseling and couple counseling program for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Key words :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sexual intimacy, couple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